

# 光日春秋

박범신



티베트를 비롯한 히말라야 일대의 사원에 가면 사원 꼭대기에 커다랗게 한 개의 눈이 그려져 있는 걸 흔히 보게 된다. 기념품 가게에서도 이 외딴눈이 새겨진 T셔츠나 돌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원 입구에서 쪽 찢어진 커다란 눈을 만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한다. 마치 숨기고 싶은 내 오장육부를 투사하는 듯한 눈빛이다.

이 눈을 흔히 '제 3의 눈'이라 부른다. 이는 영혼의 눈이다. 티베트에서의 전통적인 수행방법은 일반적으로 존재의 근원인 절대적 본성을 똑바로 보는 정경이 그 첫째이고, 정경을 확고히 다져 끊이지 않는 체험으로 다지는 명상이 그 둘째이며, 그러한 정경과 명상을 우리의 실제, 또는 현실적인 삶 전체와 합일시키는 행위가 그 셋째이다. '제 3의 눈'이란 말할 것도 없이 정경을 위한 눈이다.

사람에게 눈이 두 개 있다. 좌우에 눈이 있는 것은 넓게 보자는 것보다 오히려 똑바로 보자는 뜻에 더 부합된다. 한쪽 눈만 가지고선 아무래도 사물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개의 눈

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실이라고 믿는 현상에 불과하다. 객관적 현상을 똑바로 보자는 사실주의적 세계관이 바로 이 두 개의 눈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현상은 곧 진실인가. 사실주의적 세계관의 문제는 진실이 항상 사실이나 현상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고약하게도 사람은 보는 데로만 알고, 보는 데로만 보고, 보는 데로만 삶을 운영하지 않는다. 사람은 두 개의 눈으로 현상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제 3의 눈'으로 현상 너머의 다른 본질을 또 본다.

그것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거창하게 본성을 꿰뚫는 영혼의 눈이라고까지 갖다붙일 것도 없다. 문화적 인간과 야만적 인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제 3의 눈'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말

하자면 기억의 눈과 상상력의 눈을 말하는 것이다.

사물을 볼 때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사람이 생물학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현상에 불과하지만 은밀한 내적 통로를 통하여 그는 그 현상을 현상으로서만 보지 않고 기억과 상상력을 보태어 해석한다. 이를테면 숲을 보면서 수목장이란 장례문화를 생각하고, 장례문화를 통해 오래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를 통해 평생 나무꾼이나 다름없이 살아온 아버지의 가난한 생애에 닿는다. 가난

이길 수 없는 동물의 충위에 놓여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신적 인간에 이를 수 있을만큼 그 충위가 넓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어떤 이는 그 자신 부처가 된다. 인간이 지상에서 하늘까지 그토록 넓은 충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기억과 상상력이라는 '제 3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단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은 오로지 생물학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것이 된다.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비로소 기억과 눈과 상상력의 눈이 작동한다. 짐승의 충위로부터 하늘의 충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한대의 스펙트럼 앞에 존재하는 인간이 어떤 충위에도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기억과 상상력으로 요약되는 '제 3의 눈'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최상의 정보화 국가를 이룬다고 해도 이 모든 정보가 오히려 기억과 상상력을 도태시키거나 감금시키는 방향으로만 확장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성공'이라고 부르는 '신화'도 마찬가지다. '제 3의 눈'을 감금시키는 정보화나 성공은 우리를 다만 물질의 감옥 속에 가둘 뿐이다. <작가 명치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 3의 눈'

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도 그는 비로소 깨닫는다. 기억의 총체성을 부각해서 그는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셈이 된다. 그는 그것을 인해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땀 수도 있다.

상상력도 마찬가지로 힘을 발휘한다. 숲을 보고 자연의 원리를 상상할 수 있고 자연의 원리를 짚어 우주를 내다볼 수도 있다. 지구조차 떠날 수 없는 인간이 신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신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조건은 따져보면 식욕과 성욕조차

## 시설

### U대회 유치 '재도전' 여부 결정 서둘러야

광주시의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재도전 여부에 관한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잇그제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비로소 기억과 눈과 상상력의 눈이 작동한다. 짐승의 충위로부터 하늘의 충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한대의 스펙트럼 앞에 존재하는 인간이 어떤 충위에도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기억과 상상력으로 요약되는 '제 3의 눈'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최상의 정보화 국가를 이룬다고 해도 이 모든 정보가 오히려 기억과 상상력을 도태시키거나 감금시키는 방향으로만 확장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성공'이라고 부르는 '신화'도 마찬가지다. '제 3의 눈'을 감금시키는 정보화나 성공은 우리를 다만 물질의 감옥 속에 가둘 뿐이다. <작가 명치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U대회 재도전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 지난번 유치 실패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2015년 대회 유치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광주시의 공식 입장은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결정을 망설임이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2015년 성문자들은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에 따른 광주의 인지도 향상과 도시 마케팅 효과 등을 강조했다. 반대론자들은 U대회는 국제적 이목을 끌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어제는 찬반 성명전까지 벌어졌다. 일부 체육단체 등이 성명을 통해 U대회 재유치를 촉구한 반면 그동안 신중론을 펴온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 '시민 의견 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은 앞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 안전 불감증이 부른 번지점프 추락사고

나주의 한 유원지에 설치된 번지점프대에서 점프를 하던 30대 남성이 로프가 끊기는 바람에 30여m 아래로 추락,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번지점프는 로프 하나에 생명을 맡긴 채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위험한 레포츠지만 안전장치가 허술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또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장의 정황을 보면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숨진 남성의 발목 부근에서 로프가 끊어졌고 로프 곳곳에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번지점프의 로프가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끊겼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번지점프에 사용되는 로프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로프 안에 안전줄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 또 500회 이상 사용하면 교체할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번지점프장은 말레이

시아의 한 회사에서 제작한 검증되지 않은 로프를 사용했다고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안전시설이다. 주차장에 설치된 점프대 주변에는 공기매트 이외에는 별다른 안전시설 없다고 한다. 점프대 밑에 공기매트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도 낙하하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질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예정된 것이냐 다름없다. 행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부른 것이다. 번지점프는 건축물 증축시공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서 시설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가려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신중 레포츠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안전 관리가 지금처럼 허술해진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 無等鼓

여름철 불청객 적조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갑작스레 번식해 바닷물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다. 붉은 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 적조(赤潮)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난 70년대 이후부터 연례행사로 양식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적조는 삼국사기나 조선실록에도 기록될 정도로 역사가 깊다.

현재로서는 황도를 뿌리는 것 외에 현저한 방제 대책이 없다. 황토가 적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1970년대 일본과 미국에서 시작됐으나 우리나라가 최초로 실제 방제에 사용했다.

황토의 어떤 성분이 적조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 황토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규소가 가장 많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이 함유돼 있다. 이들 성분들이 바닷물 속의 영양물질과 미세 플랑크톤을 흡착하거나 응집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적조생물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힌다.

황토 살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

리도 적지 않다.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유한자원인데다 철이나 망간이 함유돼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오히려 적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포 비용이 저렴해 대량으로 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가장 유효한 방제 수단일 수밖에 없다.

매년 피폭되는 적조는 자연현상이라기 보다 환경오염이 불러온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는데다 바다 오염으로 인한 부영양화도 적조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어패류 배설물과 분해되지 않은 사료 찌꺼기도 적조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

이다. 다행히 올해는 적조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확산될지 안심할 수 없다. 황토 살포 등 땀 흘린 처방보다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양식장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김재열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 향토 살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소영

북경올림픽 현장, 400m 남자 수영 결승전을 앞두고 수영경기장은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다. 금메달 예비후보에 대한 각종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도 뜨겁다.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된다.

-아나운서 : 여기는 북경 올림픽 현장입니다. 곧 400m 남자 수영 결승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지금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해설자 : 슬슬 트레이닝복을 벗고 수영복 차림을 하는군요. 역시 ~ 유희도 전신 수영복이 대세입니다.

-아나운서 :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선수들 수영복이 각양각색이네요.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도 있고, 반신 수영복에, 반바지, 팬티 수영복만 입은 선수, 마치 수영복 패션쇼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수영복에서 신소재 개발 경쟁이 치열하지요?

▲해설자 : 그렇죠, 패션쇼보다는 과학쇼가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지금

에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 빛의 게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였군요. 저의 전신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는 선수 모습을 보면 상어가 떠오릅니다.

▲해설자 : 하하,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저 전신 수영복은 사실 상어에게 도움을 받은 기술입니다. 상어의 표면은 매끄러워 보이지만 작은 삼각형 돌기들이 나 있습니다. 전신 수영복도 마찬가지로 작은 삼각형 돌기가 나 있어, 물과 표면 마찰력을 5% 줄여 줍니다. 물이 피부에 닿을 때 소용돌이가 발생하는데, 이 돌기가 그 소용돌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프공의 표면도 마찬가지로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매끈한 표면보다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저항을 덜 받고 멀리 날아가죠.

-아나운서 : 네, 같은 전신 수영복이라도 지난 몇 년간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지요? 4년 전 올림픽과 달

## 기고



최상준

중국 장쩌민(江澤民)이 주석으로 있을 때 조크가 하나 있다. 주석이 가는 길을 당나귀 한 마리가 가로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밀이 불이고 가려 해도 고집 센 당나귀는 끄떡도 안했다.

수행하던 지도자 중 리펑(李鵬)이 당나귀 앞으로 다가가 "계령령을 선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당나귀는 하찮은 처다보고 웃기만 했다. 천안문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양상쿤(楊尚昆)이 "탱크로 밀어버리겠다"고 했지만 당나귀는 못방귀만 뀌었다.

그러나 장쩌민 주석이 빈손으로 나가 당나귀 귀에다 대고 몇 마디 했는데 기겁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볼 새도 없이 몰아닥친 국내외 악재를 풀어나가다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사이 국민들은 실망했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1997년 환란 때보다 더 어렵다며 아우성이며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추락해버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13억 인민을 이끌어 가는 중국 지도자의 어려움만 할 것인가.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내일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티벳사태, 쓰촨성 대지진, 양쯔강 이남의 대홍수에 이어 신장 위구르족의 폭탄테러까지 겹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나 중국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

### 역경 이겨낸 중국, 우리도 힘을 모을 때다

버렸다는 것이다.

주위 수행자들이 깜짝 놀라 무슨 말을 해서 그렇게 도망을 쳤는지 매우 궁금히 여겨 묻자 장쩌민은 "만일 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공산당 주석 자리를 나에게 맡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중국 13억 식구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해주는 조크다.

요즈음 고유가에 물가상승, 고(高) 실업률, 광우병 파동으로 막대한 FTA 협상난항, 파업사태 등 나라 사정이 매우 어렵다. 오히려 더 힘든 데 말도 있고 '화불단행(禍不單行)'이란 말도 있지만,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 일본의 독도 자기 영토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이 이처럼 어려움에만 봉착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가장 고민이 깊은 사람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일 것이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힘입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표차로 당선됐건만 그 구체적 시책들을 펴

겨내고 마침내 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막하게 된다.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 중국은 이제 더이상 저임금·저품질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해 막강한 영향력을 지구촌에 떨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고진감래가라, 역경을 이겨낸 중국민족이 이제 그 대가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올림픽을 치르는 중국을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다시 국민을 모을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보수와 진보의 끝모를 닮은, 수도권과 지방의 다툼, 영남과 호남의 다툼,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다툼은 이제 좀 그 도를 누그러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올해의 절반을 혼란과 갈등속에 보냈다면, 이제부터는 환란을 극복했던 그 지혜를 모아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 <남회토건(주) 부회장>

### 남성들도 지나친 노출행위 자제해야

날씨가 무덥다. 짜증나고 불쾌지수도 높다. 그러다보니 누구든 훌쩍 벗어 던지고 시원함을 찾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므로 최소한의 옷은 입게 된다.

여성들의 지나친 노출도 꼴불견이지만 남성들의 노출은 여성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혐오감을 준다. 옷통을 벗어 던진 사람, 팬티 하나만 달랑 입고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피거나 신문물을 주워가는 사람, 집 안

이라고 아예 팬티 하나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 등등.

당사자는 날씨가 더운데 이까지 것이 무슨 상관이나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를 보는 여성들에게는 두렵고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무덤덤이라도 최소한의 옷 입고 생활했으면 한다.

▲우항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11호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F A X 222-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16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 제 부 2200-617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체 육 팀 2200-627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0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